

2016년도 한국스포츠평교육학회 9월 월례세미나

스토리텔링안무법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통
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좌절증후군**과
무용표현능력의 변화 및 경험
: 통합적 연구방법론 적용

지도교수 류 민 정



석사과정 김 지 은

목 차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IV	결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채널뉴스] 빈곤 청소년

20% 속하는 취약계층 관심 부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21% 왕따 경험

청소년, 술 담배 더 많이 노출

"끼니 막막"...저소득층 아이들의 '배고픈 방학'

결손가정 청소년 8%가 학업중단

줄 때는 혜택이 안 되고, 하나만 혜택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원수대로 지원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심리적 병리현상 또는 좌절증후군을 겪을 수 있다(Reynolds, O'koon, Papademetriou, Szczugiel, Grant, 20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선혜 (2002)

내면적인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과제를 집단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 대인관계 형성, 대처행동방법을 터득하여 발달시킨다.

목적

무용표현능력

스토리텔링안무법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좌절증후군을 예방하고, 무용표현능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이해

연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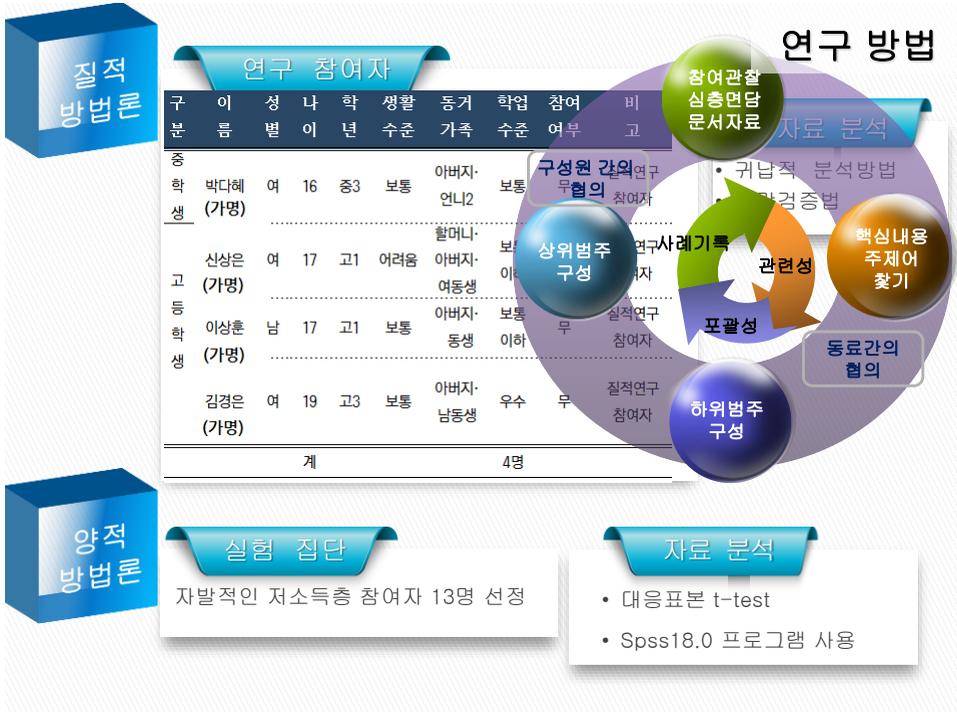
첫째, 스토리텔링안무법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좌절증후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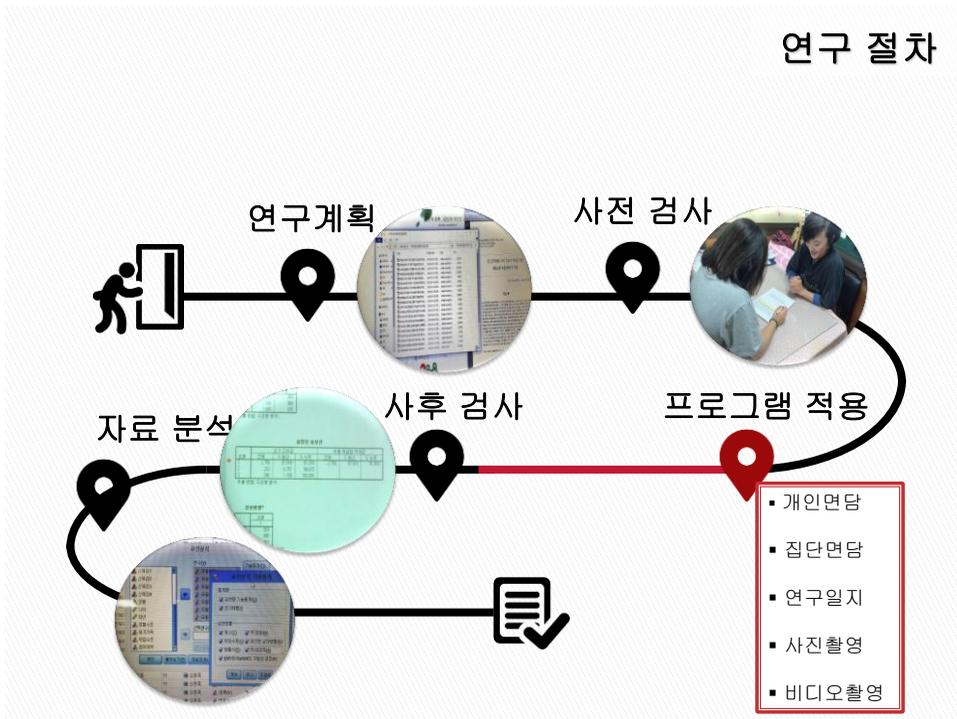
둘째, 스토리텔링안무법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무용표현능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셋째, 스토리텔링안무법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 절차



질적연구결과
및 논의

좌절증후군

- 1

초등학교 시절 왕따 경험

집단 속 즐거운 대
화
- 2

엄마의 빈자리

가족의 소중함
- 3

무의미한 학교 공부

또 배우고 싶어진 생
각
- 4

자신만의 부정적 보호막 형성

나를 발견하는 시
간

1. 초등학교 시절 왕따 경험 → 집단 속 즐거운 대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기 싫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학교 다니기 싫고 저 자살할까?
 그 생각을 심하게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2015.06.01.월요일 '상은'이와 면담중에서).



언니들, 오빠들이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친해진다, 어떻게 말 건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집 가면 맨날 계속 밝은 얼굴 밝은 웃음으로 집 가니까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2015.09.28.월요일 '상은'이와 면담중에서).

2. 엄마의 빈자리 → 가족의 소중함



다른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있잖아요. 그게 부러웠고 아빠가 남자다 보니까 쇼핑도 못해보고 뭐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나 수학여행 가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데 못하고 슬펐던 거 같아요(2015.06.01.월요일 '상은'이와 면담 중에서).



이 수업 듣고 나서 할머니랑 아빠랑 기쁘게 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이랑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여행도 가보고 싶고 할머니가 원하는 거 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2015.09.28.월요일 '상은'와 면담중에서).

3. 무의미한 학교 공부 → 또 배우고 싶어진 생각

가정형편

일찍 아르바이트 경험

선생님들의 지루한 수업

억지로 시키는 주입식 교육

왜 가야 되요? 솔직히 모르겠다 진짜 그냥 살다 디지는게 낫지 학교에서 루트 계산하는 게...밖에 나가면은 굶하기 나누기 더하기 뽀쌔만 할 줄 알면 되는데...

(2015.06.01.월요일 '다혜'와 단체면담중에서)

교육의 중요성

배우고 싶어진 마음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 태도

다혜와 상훈이는 스토리텔링안무법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로 공부방에 지각이나 결석한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음(2015.09.07.월요일 관찰일지 중에서).

4. 자신만의 부정적 보호막 형성 → 나를 발견하는 시간

스스로 벽

타인에 대한 경계

무기력한 소극적 태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 찾은 방식

성격이...모르겠어요 포장한다 해야 되나 욕도 입에 달고 살고... 무슨 형체가 있으면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보호막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2015.06.01.월요일 '다혜'와 면담중에서)

적극적 질문

해결방안 스스로

친구들의 변화, 관심

동생이랑 즐거운 맨스시간

다혜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태도로 전체적 수업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졌다. 더군다나 자신의 영역에 대해 최대한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다른 연구 참여자에게 다가가 동작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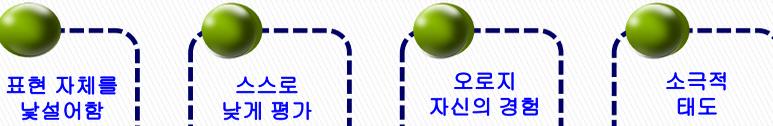
(2015.08.03.월요일 '다혜' 관찰일지중에서)



무용표현능력

- 1 한정적인 표현성 열린 나의 아이디어
- 2 갈혀있는 박자감 나만의 리듬
감
- 3 무심코 지나친 가사의 의미 발견된 작품 이야기
- 4 그저 따라하기식 뜻밖의 경험

1. 한정적인 표현성 → 열린 나의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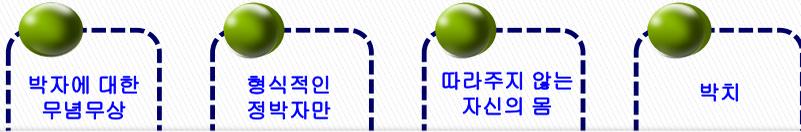


만약에 화가 났을 때 표현을 한다면 가만히? 화 참는 거? 그거 한 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웃는 것도 그냥 이렇게 스마일 입 꼬리 올라 가는거? 그거 한 개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저를 표현하는 거예요(2015.06.01.월요일 '경은'이와 면담중에서).



제스처가 들어가요 저도 모르게 수업을 듣고 나서 아 괜찮다 이러면은 손도 더 커진다
해야 되나? 제스처 들어가니까 뭔가 제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거 같아요(2015.09.28.월요일 '경은'이와 면담중에서).

2. 갇혀있는 박자감 → 나만의 리듬감



박자감은 없어요. 박치예요. 심각할 정도로는 아닌데 조금 박치예요. 타이밍을 못 잡아요. 공부방에 동아리가 있으니까 언니들 따라 하긴 하는데 그 박자가 언제 하는지 타이밍을 자꾸 놓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2015.06.01.월요일 '다혜'와 면담중에서).



전에는 박자 같은 거 생각 안 했는데 오직 안무만 기억하다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박자도 생각하면서 여유를 살짝 부리는?
(2015.09.28.월요일 '다혜'와 면담중에서).

3. 무심코 지나친 가사의 의미 → 발견된 작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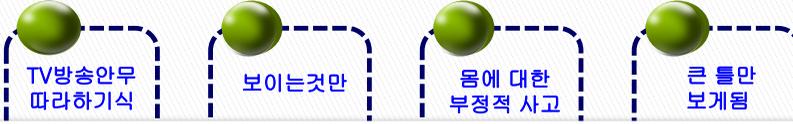


저는 그냥 공부방 애들이랑 TV보고 안무전체를 보고 따라하니깐 안무만 따라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 하면 되겠다. 생각해요. 가사를 집중적으로 뭐 생각을 하거나 그냥 전체적으로 신나면 아 신나는 거네~ 또 발라드도 조용한 거니까 아 조용하네?
(2015.06.01.월요일 '경은'이와 면담중에서).



예시로 보여줬잖아요. 그 때 쌤이 춤 보여줬을 때 Mc 스나이퍼 인생 10개월 어찌고지르고 하는 거 그때 딱 느꼈어요. 쌤이랑 프로그램 하면서 오 나도 이렇게 가사에 맞춰서 내 감정을 말하고 표현하면 되겠구나? 라고요(2015.09.28.월요일 '경은'이와 면담중에서).

4. 그저 따라하기식 → 뜻밖의 경험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그냥 노래를 듣고 이거는 어쨌다 이런 식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생각 안 하는 거 같아요(2015.06.01.월요일 '다혜'와 면담중에서).



한 동작을 가지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표정 변화도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쉽게 쉽게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손동작으로만 할 수도 있고
손동작은 같게 하는데 발 동작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2015.09.28.월요일 '다혜'와 면담중에서).

양적연구결과
및 논의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좌절증후군	M(SD)	M(SD)		
좌절증후군	3.46(.87)	2.50(.78)	7.07	.000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t	p
무용표현능력	M (SD)	M (SD)		
표현성	2.27(.73)	3.20(.62)	-4.69	.001
다양성	2.28(.88)	3.25(.65)	-4.25	.001
의미성	2.73(.58)	3.34(.56)	-4.78	.000
개성	2.57(.58)	3.28(.43)	-4.25	.001



감사합니다